

# 대덕 한국과학기술원 “21세기 무한경쟁시대

제32회 과학의 날 기념식이 4월21일 대덕 한국과학기술원 강당에서 거행되었다. 김대중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“인류역사의 최대의 격변기가 될 21세기의 국운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달려 있으며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와의 무한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”이라고 강조했으며 김병수파총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“최선을 다해서 연구개발에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책무를 완수하여 우리나라를 기술중심국가로 만들고 우리자신도 새세기에 진정한 새지식인이 되어야 하겠다”고 말했다.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수상자 및 과학기술진흥유공자 등 1천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으며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과학기술로 이기자고 다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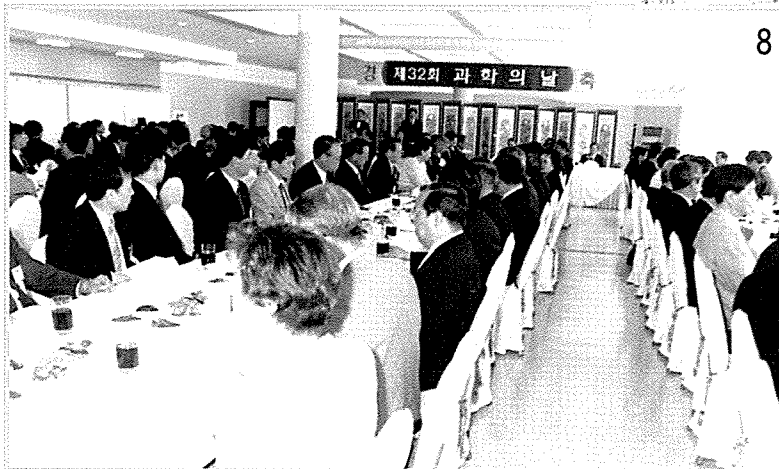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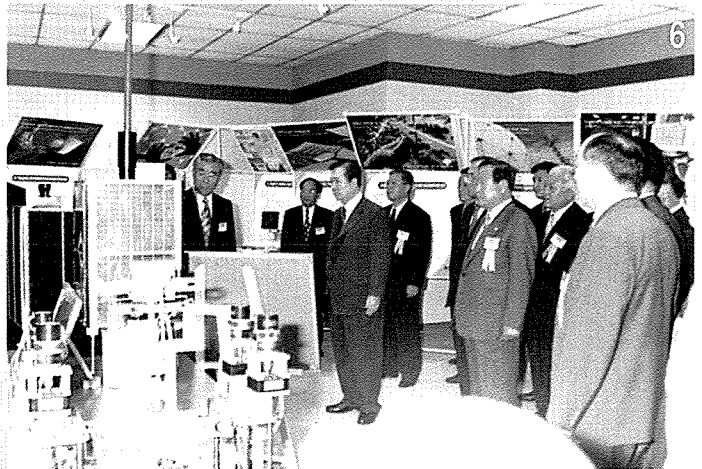


1. 김병수파총회장이 기념사를 낭독하고 있다.
2. 이날 기념식에는 1천여명의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.
3. 김대중대통령이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수상자인 정민영박사에게 시상하고 있다.
4. 김대중대통령이 과학기술진흥유공자들에게 훈·포장을 수여하고 있다. (사진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는 국방과학연구소 조태환책임연구원)

# 강당에서 1천여명 참석 "과학기술로 이기자" 다짐



- 5. 김대중대통령이 치사를 낭독하고 있다.
- 6. 기술개발성공사례 전시장을 찾은 김대중대통령. 최순달박사가 설명하고 있다.



- 7. 기념식 후 오찬에서 건배를 제의하는 김병수과총회장
- 8. 이날 오찬에는 수상자 및 과학기술계 인사 1백60여명이 참석했다.